창의성 교육 깨달음 정진과 흡사

창의적 인간 특성과 반야(般若)

김종서박사가 쓰는

불교와 교육 〈7〉

오늘날의 사회를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 옮기는 문명사적 전환기의 사회라고 한다.

다음 사회에서의 삶은 분명히 현재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삶을 영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대처하는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현재까지 하여 온 교육은 산업사회에 알맞은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의 교육은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고 정보화 사회를 이끌어 나갈 인간 육성의 교육이어야 한다.

이러한 인간상이 바로 창의성이 풍부한 인간상이다. 앞으로의 사회는 창의력 없이는 살기 힘든 사회로 될 것이다. 음식점을 경영하여도 다른 사람들이 하던 방식을 답습하면 성공할 수 없다. 새로운 기발한 아이디어의 창출이 요망된다. 이와 같은 점은 벤처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하려는 점을 보아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창의성 개발에 어느 정도 힘을 쓰고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아마도 공부하는 시간량으로 보아 우리 나라 학생같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것이다. 초등학교 학생은 학교 공부 가지고는 부족한지 방과 후에는 제2, 제3의 학교인 학원에 다니며, 고등학교 학생은 삼당사락(三當四落)이라는 처참한 생활을 할 정도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았음은 무슨 까닭인가? 말할 나위도 없이 암기 위주의 교육 때문일 것이다.

창의적 청소년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재미있고 즐겁다 그림을 그릴때는 그림과 하나가 된다 이를 삼매라고 한다

그림 · 이준석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는 암기위주의 교육을 학교에서 실시할 수는 없게 된다. 왜냐하면 암기와 관련되는 일은 컴퓨터가 맡아서 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제는 교육을 철저하게 창의성 개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할 때가 왔다.

창의성은 흔히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방법을 창출하는 능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창의성은 반야(般若)사상의 속세적(俗世的) 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점이다. 반야는 '깨달음을 얻는 지혜'이기 때문에 창의성과는 차원이 다르지만 창의적 특성은 반야를 얻기 위한 정진의 과정과 흡사하다.

첫째 창의적 청소년은 탐구적인 존재이다.

탐구는 의심에서 시작된다. "하늘은 왜 파란가?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다고 하는데 왜 무겁지 않은가? 별의 총수는 몇 개인가?"등과 같은 의심에서 출발하여 이 의심을 풀기 위하여 탐구한다.

불교에서는 탐구라는 말은 쓰지 않고 '참구(參究)'라고 한다. 역시 의심에서 시작하며 이 의심을 파하는 것을 견성(見性)이라고 한다. "나는 부모로부터 탄생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父母未生前消息), 이 몸뚱이를 움직이는 것은 마음인데 마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是甚麼), 개에는 불성이 없다고 하였는데(無字話頭), 부처를 뜰에 있는 잣나무라고 한 까닭은?(庭庭柏樹子)" 등의 의심(話頭)을 참구함이 곧 반야(般若)이다.

둘째, 창의적인 청소년은 직관적 사고를 한다.

직관적 사고는 논리적, 분석적 사고와는 다르다. 있는 사물을 진실 그대로 전체로서 파악함이 직관적 사고이다. 한 폭의 그림을 보고 무릎을 탁치며 "참 아름답다"라고 느끼는 것, 음악에 도취하여 나를 잊어버리는 것이 직관적 사고이다.

뉴튼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만유인력(萬有引力)의 법칙이 번개와 같이 떠올랐다. 논리가 단절되는 순간이다. 종래는 직관적 사고는 예술과 종교에 한정된다고 생각하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과학, 문학, 수학 등 모든 분야에서 직관적 사고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직관적 사고를 하는 순간에는 글과 말이 끊어진다. 브르너(Bruner)는 "말 잘하는 바보, 말 못하는 천재"라는 표현으로 직관적 사고를 설명하고 있다.

직관적 사고의 최고 경지가 바로 반야이다. 그러기에 선문답(禪問答)이니, 인가(印可)니하여 깨달은 사람만이 깨달은 사람을 알아 볼 수 있다. 깨달은 경지를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할 수 없으나(말 못하는) 분명히 진여(眞如) 자체는 알고 있다(天才).

일정시대 경성제국대학의 사토(佐藤) 교수가 방한암(方漢岩) 큰스님을 찾아 뵙고 "불법의 큰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였는데 이때 스님께서는 묵묵히 안경을 들어 보였다. 직관적 사고의 세계이며 반야의 세계이다.

셋째, 창의적인 청소년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다양한 사고를 한다.

창의성과 고정관념은 상반된 사고(思考)이다. 고정관념으로써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하여 해결하는 인간이 창의적인 인간이다.

다음 일화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현대그룹에서 서산 간척지를 만들 때 있었던 일이었다. 제방을 쌓아 바다를 막고 있었는데 260m 정도를 남겨 놓고는 물살이 너무 세서 바다를 막을 수가 없었다. 토목공사에 이론이 밝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협의 하였으나 묘안이 없었다. 이때 정주영 회장의 제안에 따라 길이 323m, 높이 27m, 폭 45m의 스웨덴제의 헌 유조선을 사다가 막지 못한 부분에 가로질러 가라 앉혔다. 그리하여 물살이 약하게 된 틈을 타 나머지 제방을 쌓았다.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정주영 공법'이 되었다. 이 얼마나 고정관념을 벗어난 다양한 사고인가?

불교에서도 다양한 사고를 한다. 반야를 얻기 위한 법문이 8만 4천이나 되며 참선의 공안(公案)이 무려 1700이나 있다. 반야는 세속적인 고정관념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다.

넷째, 창의적인 청소년은 몰두한다.

"침식을 잊고 열중한다"는 말이 있다. 그림을 그릴 때는 그저 그릴 뿐이다. 이 그림을 그려서 팔면 돈이 얼마나 생길까? 친구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따위의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그림을 그릴 뿐이다. 그림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과 내가 하나가 된다. 밥이 타서 밥탄 냄새가 방안에 가득 찰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책만 읽는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매(三昧)라고 한다. 심일경성(心一鏡成)이라고 하며 마음을 한곳에 모아 정신을 산란하지 않게 하는 정신작용이다. 반야(般若)는 삼매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참선삼매, 염불삼매, 독경삼매는 반야에 이르는 빠른 길이다.

다섯째, 창의적인 청소년은 현실 문제를 초월한다.

창의적인 청소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재미가 있고 좋아서 그리고 즐거워서 하고 있다. 물질적 보수나 관능적 향락이나 세상 사람들의 비판이나 시간적 낭비 같은 현실 문제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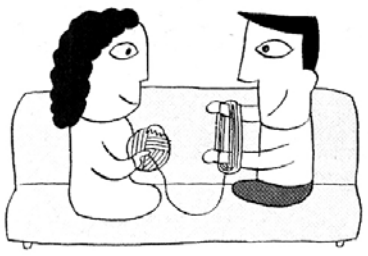
반야는 현실을 완전히 초월해야 얻을 수 있다. 희로애락의 현실 세계는 상대적 세계이며 차안(此岸)의 세계이나 반야의 세계는 현실을 초월한 절대의 세계이며 피안(彼岸)의 세계이다.

이 점은 불자들이 가장 많이 독송하는 마하반야밀다심경(摩訶般若蜜多心經)의 뜻이 "큰 지혜가 있는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임을 보아도 알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 위원장〉

"탐구능력 · 직관적 사고 키우자"
정보화사회일수록 '암기'는 불필요

생활불교용어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고 할 때 "이심전심이지"라는 말을 쓴다. 말도 하지 않았는데 서로 뜻이 통할 때도 "이심전심이야"라고 한다. 흔한 말로 '척하면 알았을 때'도 '이심전심'이라고 한다. 문자가 아닌 마음으로 전한다해서 이심전심(以心傳心)은 불립문자(不立文字) 언어도단(言語道斷), 그리고 직지인심(直指人心)이 수반된다.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도 한다.

무엇을 글도 없이 말도 없이 타인의 마음속에 전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알게해주는 기록이 부처님과 가섭존자 사이에 있었던 염화시중(拈花示衆)의 미소를 비롯한 삼처전심(三處傳心)이다.

영축산에서 설법을 하던 부처님께서 아무 말 없이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셨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했는데 가섭존자만이 부처님의 마음을 알고 빙그레 웃어 보였다. 두 번째 이심전심은 부처님께서 죽림정사 다자탑에서 설법하시던 중 남루한 차림으로 찾아와 대중들이 경멸하는 가섭존자에게 부처님께서는 아무말 없이 당신이 앉아 있던 자리의 반을 가섭에게 내어 주신다. 마음으로 아는 사람은 가섭과 부처님이 분별되지 않음을 본다. '다자탑전 반분좌(多子塔前 半分座)'의 이심전심이다. 세 번째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찾아온 가섭에게 관 밖으로 두 발을 내어 보인 일이다. '사라쌍수하 곽시쌍부(娑羅雙樹下 槨示雙趺)'라고 한다. 굳이 말이 필요없는 사이, 상대의 의중을 헤아려 공감할 수 있을 때 이심전심으로 마음의 화합을 가질 수 있다.

요즈음 우리 사회에 이 마음(心)을 일컫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대통령의 마음을 일컫는 '김심(金心)' 'YS심(心)'이 그 대표라고 하겠다. 눈치빠른 정치인들은 그 '김심'을 파악하느라 정말로 헤아려야 할 민심(民心)은 안중에도 없다보니 정치며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닐까. 얼마남지 않은 대선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심과 '이심전심'이 되는 그런 지도자가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부처님과 가섭존자의 삼처전심 말하지 않아도 서로 뜻 통함

※참고: 안길모著 '이판사판 야단법석'

감 · 로 · 심 · 장 · 회

● 형편이 어려운 환자를 돕는 순수봉사단체입니다 ●

심장병 · 안면기형 · 안과 (백내장, 녹내장)

후원문의: ☎ (0591)747-0106

1997년 3월 4일 화요일 주간불교

인터뷰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 대구 여래한방병원 시연 스님

시연스님(대구여래한방병원 원장)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 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품으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용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여래한방병원을 운영하며 오랜세월 불치병 치료에 전념해 온 시연스님은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을 현대화된 의약품으로 선보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허출원자인 시연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위장질환의 치료에 효과가 탁월하다"고 그 효능을 설명했다.

현재 국내 감식초음료 시장이 2백50억원대의 규모로 확장돼 있는 것이 현실인점을 감안하면 사업전망은 밝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상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불로화정의 판매 수익금은 경주시내 99평 대지에 건립될 5층규모의 한방병원 설립에 쓰여진다. 또 한방병원 건물내에는 무료예식장과 탁아소도 만든다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불로화정 (不老化精)

오랜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으로 40여년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은 발에 땀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펴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 가 격 :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2개월분 400,000원)할인하여 드립니다.

▣ 입금구좌 : 대구은행 김창수 : 033-07-172508

如 來 健 康 院

문의전화 : (053)655-2227

법보신문 제409호 1997년 3월 5일 수요일 12

화제

여래한방원 시연스님 '불로화정' 특허 출원

대구에서 여래건강원을 운영하며 병고에 시달리는 불자들을 돌봐오던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깨)와 감식초 외에 10여가지 첨가물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화제이다. 스님은 "'불로화정'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위장질환과 암을 억제하며 노인성 질환을 예방, 치유하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참깨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참깨에서 노화억제 및 암예방효과가 입증된 「세사미놀」 성분을 대량다.

세사미놀은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물질로 지금까

-KBS TV 6시 내고향(9월9일) 방영-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하였음